

2026년 9월 시청자의견 반영실적

방송사명 : 여수문화방송(주)

1. 의견 제시 및 조치현황

구 분	의견제시	조치현황	처리비율
9월	20	20	100%

2. 시청자 의견 제시에 대한 조치내용

연번	접수 일자	의견제시 내용	접수경로	해당부서	조치내용
1	9/1	MBC전남 출범 소식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경영심의 센터	안녕하세요. 여수MBC입니다. 문의하신 'MBC전남 출범'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로 논의되거나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방송에 관심을 갖고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	9/11	MBC전남 출범 추진합니까?			
3	9/14	MBC전남 통합 요청합니다. 광주MBC, 목포MBC, 여수MBC 하나로 합쳐서 <MBC전남>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4	9/13	천하제일성시(天下第一城市) 여수시 섬 박람회 흥행은 주제에 충실한 운영으로 가능합니다. 섬박람회 초반 흥행 저조를 타개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자 적습니다. 1. 섬박람회 주제는 "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 입니다. 여수 섬박람회의 주제에 '문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이른바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인하여 완도, 진도 등과 같은 큰 섬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가령 폴리네시아 같은 독자적 섬문화 형태는 형성이 된 적이 없어서 섬 특유의 문화에 착안한 축제의 개최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365 섬 헬기관광을 도입하여 미래지향적 관광컨셉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여수는 당초 섬박람회를 기획할 때 '365개 섬'을 강조했습니다.	홈페이지	경영심의 센터	안녕하세요. 여수MBC입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섬박람회 운영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제안으로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울러 섬박람회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통해서도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eosu2026.or.kr/6_1 감사합니다.

		중국의 실크로드 관광코스에 있는 칠채산(七彩山)과 화염산(火焰山)을 가보니 항공관광이 잘 마련되어 있고 특히 칠채산의 헬기관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광의 행태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여수 섬 박람회에도 즉시 헬기관광을 도입하여 공중에서 섬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국에 자연경관 관광으로 중국에 상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곳이 남해안 다도해입니다. 남해안 다도해의 특이성형을 잘 어필하면 중국의 유명자연관광자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3. 고흥 연륙연도교를 연계하기 바랍니다. 1970년대에 한 학자에 의해서 남해안 섬의 연륙연도교의 건설과 관광자원화에 대한 한 권의 책이 출간됩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륙연도교가 건설되어 왔고 특히 여수에서 고흥간은 연륙연도교로 연결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를 알리고 이곳을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를 바랍니다. 4. 섬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순천시 모든 관광지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순천시와 협조하기 바랍니다. 중국은 전통시대에도 최소 행정구역의 넓이가 최소 사방 100리 땅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시(地級市)는 최소한 경기도 정도의 넓이입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를 보면 대부분 지급시를 단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1000년 전에 구획된 그대로에 안주하여서 특히 관광산업 진흥에는 결정적으로 취약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수 섬박람회 개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수시만의 협소한 지역의 자원으로 거창한 세계박람회를 커버하려다 보니 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즉시 순천시의 협조를 구해서 순천시의 모든 관광지에 대해서 섬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들에게 한해서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여수 섬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5	9/14	동부지역 통합은 여수시-순천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 통합이어야 합니다. 최근 동부지역 통합논의를 보면 여수-순천-광	홈페이지	경영심의 센터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지역의 통합 방향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확인

	양 등을 통합하는 이른바 광양만권의 통합을 도돌이표처럼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광양시가 중국에 가서는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의 진행에는 특히 광양시가 하동군의 포함을 내세워서 결국은 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또한 여수-순천-광양의 통합은 그대지 미래지향적 메리트가 없어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없습니다. 1. 여자만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제 1 목적으로 하는 통합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수시마저도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최근 서영학 여수시장은 단 한번도 실제 건설이 된 적이 없는 소형원자로인 SMR의 건설지역으로 여수산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수시의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사실상의 원자폭탄인 원자로의 테스트베드로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을 내주기로 하는 용감한지, 무식한지 모를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수산단의 구조조정으로 현 실업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망상입니다. 현재는 특히 인공지능이 바탕이 되는 공장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차후에 여수산단의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난망한 상황입니다. 여자만을 원형성으로 매립하고 이곳에 국제도시를 만들어서 UN아세아 본부를 유치하고 세계 150국 거리 조성을 전제로 국제분양을 하면 단 기간에 건설비의 10 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향후 지역의 발전과 역사의 영속성을 담보하여 더이상 지역주민들이 직업을 찾아서 타향으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동부지역은 21세기 세계중심도시로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자만 원형성 매립과 국제도시 건설은 이미 100 여 년 전 일본에 의해서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 여자만 국제도시의 건설로 세계와의 연계의 틀을 만들어서 지역 역사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의 동부권의 지자체는 교토삼굴(狡兔三窟)의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는 뜻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여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다각도의 대안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이미 20 여 년 전부터 여수화학공단의 자동화로 인하여 여수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등한시한 것이 오늘날 여수시의 끝모를 추락을 가져온 결과입니다. 3. 여수-순천-구례-보성-고흥의 통합의 필요성은 특히 관광산업의 진흥입니다. 향후에 동부지역 산업의 20% 정도는 관광산업이 담당해야 합니다. 이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광역화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다양화 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위해서 동부지역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갯벌-산이 있습니다. 여수시 고흥군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순천만의 갯벌, 그리고 해발고도 1,500m에 이르는 1호 국립공원 지리산 구례 노고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관음도량 여수시 향일암, 순천시의 승보종찰 조계종 송광사, 유네스코 유산 선암사, 고흥의 팔영산과 능가사를 사찰관광상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착안하면 최소한 관광객을 일주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마침 녹차의 한 종류인 말차(抹茶)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고흥 녹차산업의 제 2의 중흥기를 맞이 했는데 이 또한 관광자원으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동부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6	9/14	구례군 토지면, 마산면, 문척면을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전남 반도체산업은 구례군 토지면과 마산면 일대 500만평에 TSMC를 유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반도체산업은 크게 '주문형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부문으로 나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였고 대만은 주문형 반도체가 발달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분업의 결과였는데 현대에 이르러 '주문형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만의 TSMC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TSMC공장이 있는 대만과 일본에서 지진활동이 극대화 되어 감에 따라서 안전지반에 대체공장 및 확장공장의 건설을 물	홈페이지	경영심의센터	안녕하세요. 구례군 일원의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과 지역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의견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시청자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반이 가장 안정적인 곳은 '시생대' 지반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진활동 지역으로 비켜나 있는 한반도에서 '시생대 지반'은 유일하게 전남 뿐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은 전남이 차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2. 미래반도체 산업은 '주문형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 형' 복합형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문형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이 부문에 대해서는 TSMC에 비해서 약세입니다. 반도체 회로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른바 '노하우'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이론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신생업체가 얼마간 따라갔을 때 기존업체는 이미 저만큼 가있는 모습을 보여서 특히 주문형 반도체의 기술적 갭을 극복하기란 기대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3. 전남의 '주문형 반도체 산업'과 '수도권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균형성장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산업정책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취약성이 있는데 외부 경제환경에 비교적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락과 공급과잉으로 삼성전자는 사업의 축소를 고려했습니다. 반면에 주문형 반도체 업체인 TSMC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액 면에서나 수익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서갔습니다. TSMC를 구례군에 유치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두 부문이 함께 발전할 것이며 반도체 경기에 종속하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완충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왜 구례군 토지면, 마산면인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1. 반도체 제조용 강모래 2. 청정 공업용수 3. 전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섬진강 모래를 유조선에 한 가득 퍼주고 반도체 웨이퍼 제작용 반도체 잉곳(Ingot) - 모래(규소)를 정제하여 만든 고순도 실리콘을 고온에서 녹인 후, 단결정 형태로 굳혀 만든 실리콘 기둥으로 이것을 잘라서 반도체 제작용 웨이퍼를 만듦 - 몇 개를 돌려받았던 일화는 지금도 반도체산업계에서는 여전히 회자되고			
--	---	--	--	--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례군 토지면에 접하고 있는 섬진강은 무한정의 모래를 계속 퇴적시키고 있어서 반도체 원천재료를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한국의 보물창고입니다. 다음은 청정 공업용수의 확보입니다. 현재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의 공업용수는 순천시에 있는 주암댐에서 가져갑니다. 토지면 용수도 주암댐의 물을 순천시 동천을 따라 관로를 설치하여 간전면 865번 국도에 연결하여 토지면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면 일대가 반도체 산단 용수확보에 천혜의 조건인 것은 바로 '1 급수'인 섬진강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주암댐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섬진강물을 정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수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전력공급망입니다. 토지면에는 수도권 전력공급용 전기철탑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는 곧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이 인접해 있어서 발전소 증설이 용이하여 수요전력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RE100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상풍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이의 확장이 용이하므로 이 또한 미래산업단지로서 강점입니다. 5. 840번 국도, 865번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 순천-구례 토지면 간 이동시간을 15분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개발을 위해서 '대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순천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기를 바라면 캠퍼스를 구례군 문척면 일대에 두기 바랍니다. 반도체의 수출은 항공편으로 합니다. 즉 공항이 필요합니다. 동부지역은 여수공항과 연계하여 수출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즉, "토지면-순천시-여수공항"의 수출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순천시-구례군-순천대학교가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를 바랍니다.			
7	9/16	왜 여수시에서 시민에게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걸 뉴스내보내지않나요?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8	9/16	사실 여부도 확인안된 자극적인 뉴스도 모자라. 댓글도 막아두나요??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9	9/17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10	9/17	너무 약사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보도 같습니다.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11	9/17	[주작제보에 낚인 여수MBC] 사실확인 0% 오 보 내보내고 댓글창 닫으면 끝입니까?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12	9/17	[감기약을 피임약으로]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정정보도 요청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13	9/17	언론맞나 공정보도가 기본 아닙니까 좌비씨 수 준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14	9/17	피임약 기사 정정보도 해주세요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15	9/17	사실 확인도 안된 사안으로 약사를 악마화하는 게 언론인가? <비밀글>	홈페이지	보도센터	<비밀글>
16	9/17	순천 모 약국 초등생 피임약 사건 진위여부 파 악하고 정정 보도 내세요. 순천 모 약국 초등생 피임약 복용에 관련한 기 사를 마치 약국의 온전한 잘못으로 몰고 가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건 진위 파악 결과 초등생의 거짓으로 밝혀 졌습니다. 정정 보도와 함께 해당 약국 및 약사에게 오보 와 관련하여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보도센터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 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지적과 우려 섞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미성년자의 의약품 복용 및 안전 관리 문제라는 공익적 차원 에서 출발하였으며, 특정 직능을 평 혜하거나 일방의 편을 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현재 보도국에서는 학생 측뿐만 아니 라 해당 약국 및 관계자분들의 입장 과 의견 역시 폭넓게 청취하며 객관
17	9/17	야. mㅂㅈ 해명 가관이네. 미성년자의 의약품 복용 및 안전 관리 문제라			

		는 공익적 차원에서 출발 ???????????? 이게 해명이에요?? 특정직능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해명에서는 이미 약사가 잘못이라는 안전관리 문제를 바탕으로 했다는거 잡아요. 머리가 안되면 기사를 하지말라고 하세요 제 글도 제대로된 언론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출발한거니 비공개 처리 하지마시구요			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 습니다. 여수MBC는 시청자 여러분의 비판과 조언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9/20	초등생에게 감기약을 피임약으로 잘못 팔았다 는 기사 감기약을 달라고 했는데 피임약으로 잘못 준 거 확실한가요? 기사제목부터 약사의 과실로 보이게, 라디오 뉴 스 광장에도 제목을 감기약으로 둔갑한 피임약 이라고 단정지었던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한 거 맞습니까? 알려주세요.			
19	9/29	[2시 종합뉴스][3시 뉴스] 여수MBC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TV 메뉴에 아나운서소개에 들어가보니까 김진호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에 뭔가 [12시 뉴스][3시 뉴스]가 갑자기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12시 뉴스가 아니라 2시 종합뉴스였습니다. 그러면 여수MB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TV 메 뉴에 아나운서소개에 들어가셔서 김진호 아나 운서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을 [2시 종합뉴 스][3시 뉴스]를 수정 교체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경영심의 센터	안녕하세요. 여수MBC입니다. 2026년 6월 29일 개편 이후 김진호 아나운서는 12시 뉴스와 2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홈페이지 뉴스 메뉴의 표 기 사항은 확인 후 수정하였습니다. 관심 갖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	9/30	12시 뉴스를 삭제 바랍니다. 여수MBC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뉴스 메뉴 에 뉴스투데이 다음에 뭔가 12시 뉴스가 갑자 기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12시 뉴스는 지난 2026년 6월 28일 일요일에 종영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수MB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뉴스 메뉴에 뉴스투데이 다음을 12시 뉴스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경영심의 센터	안녕하세요. 여수MBC입니다. 홈페이지의 '12시 뉴스'는 라디오 뉴 스로 현재도 편성·방송 중입니다. 다만 개편 후 홈페이지 뉴스 메뉴 운 영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해당 메뉴를 삭제하였습니다. 관심 갖고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 다.